

광주 가족친화기업 인증 22곳으로 늘어

신세계백화점 등 7곳 추가

일·가정 병행 좋은 일자리 증가

가족친화경영에 나선 광주지역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등 관내 7개 기업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주)우우식품, (주)위치스, 샬롬산업(주), (주)씨엠

텍, (주)10억홈피 등 중소기업 5곳과 (주)광주신세계, 금호터미널 등 대기업 2곳 등 총 7곳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인증기관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광주시청과 북구청, 남구청, 광주은행 등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해마다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 경영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

도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4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544개사가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2011년 최초 인증 획득한 광주시청, 북구청, 남구청, 광주은행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가족친화 경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친화 우수인증기업은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와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 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된다.

광주시에 지역 가족친화우수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우선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신현대 광주시 여성정책 담당은 “가족친화경영인증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만족감 높은 기업 분위기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7일 광주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노사공동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정선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은 2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사랑의 집’에 직접 전달했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亞문화전당 주변 보행환경 개선

20억 들여 인도 넓히고 조형물·시설물 이전 작업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해 인도를 넓히고, 보도에 설치된 조형물과 각종 시설물을 이전에 보행 편의를 도모한다.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안 전행정부)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문화전당에서 금남로 3가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56명의 사업추진협

의회를 구성해 8차례의 논의와 전문가 개별 자문을 받아 10월말 설계안을 확정했다.

기본설계에는 인파가 집중되는 ‘문화전당~금남로 3가’ 530m 구간을 차로 수는 유지한 채 폭을 줄여, 총장로 폭 인도를 6m→8m로 2m 확장하고, 양방향 전체 구간을 화강석으로 포장 정비한다.

또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이면도로 진입로 구간의 차도를 고원식(보도 높이와 같게 시공)으로 설치하고, 보도 위에 설치된 한전 분전함, 조형물, 볼라드, 공중

전화, 우체통, 자전거 보관대 등의 지장물 312개를 이설하거나 정비해 보행 방해 요인을 최소화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지하상가 입구, 조형물, 분전함 등이 밀집한 광주YMAC 인근 한전 분전함 9개를 통합 이설하고, 금남로 구간에 설치된 조형물 15개도 예술길로 이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는 기본설계 안을 토대로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 3월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구 전남도청 이전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로 인도 정비를 미뤄왔던 문화전당지구 주변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대표적인 걷고 싶은 도심길로 조성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부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광주 풍영초 미래아나운서상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광주 풍영초등학교 참가팀이 미래아나운서상을 수상했다.

풍영초등학교팀(지도교사 이우미) 참가 학생은 나해광, 이민규, 김도환, 장수연, 서인영, 정예진, 김재현, 김나현, 백예은, 문예연 등이다.

이번 대회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UCC 분야와 그 내용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친 19개 팀 300여 명이 경연을 펼쳤다. /채희종기자 chae@



버스가사 근골격계 질환·직업병 체계적 관리

광주시-조선대 근로자건강센터 무료건강관리 업무협약

광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다.

광주시와 조선대학교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이철갑), 광주서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기)은 최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료건강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철갑 센터장·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김동기 조합 이사장>. 이에 따라 시내버스 종사자 2530여명이 무료로 근골격계 검사 등을 받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홍보와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근골격계·뇌심혈관질환·직무스트레스 검사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직업

무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내버스운송조합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이 연 1회 무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은 물론, 시내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3개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시내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6기 들어 일곡·장등 공영차고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운전원 명품제복 착용 등 시내버스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동절기를 맞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1월에는 최근 12일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3개단지 입주민 161세대를 찾아 등기구, 세면대, 누전차단기, 싱크대 수전등을 교체했다. <사진> 또 보일러 및 난방시설, 싱크대, 배관누수, 욕실 샤워기 등을 수선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재능이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주는 봉사단이다.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저소득층이 생활이 어려워 수선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광주’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